



**한경협-KEP, 여성기업 판로 확대 지원 '맞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KEP)와 손잡고 여성기업 판로 확대에 나선다. 여경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분회에서 KEP와 여성기업 공공조달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왼쪽)이 박대전 KEP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경협



**LG디스플레이, CDP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10년연속 선정**  
LG디스플레이는 2025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10년 연속 IT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온실가스 감축·관리 노력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 고도화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 확대 등 주요 부문에서 평가 상위 등급인 '리더십 A-'를 받아 10년 연속 선정 기록을 이어갔다. /LG디스플레이



**유한재단-사회보장정보원, 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유한재단은 지난 9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돌봄청소년 및 청년 대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층 대회의실에서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왼쪽)과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유한재단



**오비맥주, '세계 물의 날' 기념 수자원 보호 활동**  
오비맥주는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지난 9일 광주 생산공장 인근 영산강에서 하천 정화와 공장 내 나무심기 등 수자원 보호 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9일 영산강 일대 하천 정화 활동은 민·관이 함께한 합동 행사로 열렸다. 오비맥주 박재원 광주공장장 등 임직원 30여 명과 광주 북구 환경생태국 기후환경과 및 한국환경보전원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해 하천 인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 /오비맥주



**iM금융그룹, 봉사단·대학생홍보대사 통합 출범**  
iM금융그룹은 'iM동행봉사단'과 'iM대학생홍보대사'의 올해 활동을 시작하는 '2026 iM봉사단 통합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iM뱅크 제2본점에서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는 임직원과 그 가족으로 구성된 'iM동행봉사단', 전국 대학생 70명으로 구성된 'iM대학생홍보대사'의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iM금융그룹

# 삼성전자, GDC2026서 게이밍모니터 플레이 경험 제공

오는 13일 **美 샌프란시스코**서 열려 2026년형 오디세이 신제품 소개 3D·HDR 화질 제공 확대 예정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혁신적인 게이밍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오는 13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GDC 페스티벌 오브 게이밍 2026(이하 GDC)'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GDC 개최에 맞춰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 별도의 행사장을 마련하고 ▲무안경 3D 모니터 '오디세이 3D' ▲게이밍 모니터 최초 6K 초고해상도 32형 '오디세이 G8' ▲세계 최초 듀얼 모드 기반으로 최대 1040Hz 주사율을 구현한 '오디세이 G6' 등 2026년형 오디세이 신제품을 소개한다.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인 '오디세이



삼성전자 모델이 'GDC 페스티벌 오브 게이밍 2026'에서 삼성전자 행사장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 3D'는 3월 중 전세계 게이머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게임인 '헬 이즈 어스'를 3D 모드로 지원한다.

헬 이즈 어스는 로그 팩터에서 개발한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특유의 역동적인 액션이 3D 기술과 만나 더욱 실감나는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또 올해 말까지 서바이벌 호러 게임 '크로노스: 더 뉴 던'을 포함해 3D 모드 지원 게임을 120개 이상으로 확

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퍼스트 버서커: 카잔 ▲스텔라 블레이드 ▲P의 거짓: 서곡 ▲몬길: STAR DIVE 등 60여 종의 게임을 '오디세이 3D'로 지원하고 있다.

'오디세이 3D'는 별도 안경 없이도 시선 추적과 화면 맵핑 기술을 통해 게이머의 시선에 맞춰 실시간으로 화면 깊이와 입체감을 조정해 몰입도 높은 3D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게이밍 모니터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게임 제작사와 손잡고 'HDR10+ GAMING' 기술도 확대 도입한다.

'HDR10+ GAMING'은 게임 콘텐츠의 장면 및 프레임 분석해 입체감을 높여 게이밍에 최적화된 HDR 화질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레드 데드 리뎀션 2 ▲사이버펑크 2077 ▲배틀필드 6와 F1 25 등 총 14종의 게임 ▲언리얼 엔진 ▲프로스트바이트 등 총 5종의 개발 플랫폼에 'HDR10+ GAMING'을 확대 적용한 바 있다.

특히 3월에 출시하는 펄어비스의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 사막'에도 'HDR10+ GAMING'을 도입해 게이머들에게 한층 더 실감나는 HDR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 삼성전기, CDP '플래티넘 클럽' 선정 현대로템, 'iF 디자인 어워드' 2관왕 쾌거

기후변화부문 최고등급

삼성전기가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으로부터 ESG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삼성전기는 CDP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CDP 코리아 어워드'에서 기후변화부문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클럽'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CDP는 전세계 주요 상장기업의 기후변화대응 전략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감축노력 등을 매년 투자자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글로벌 비영리 기관이며, CDP 평가결과는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DJSI), FTSE 4Good 지수 등과 함께 가장 신뢰도 높은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플래티넘 클럽은 명예의 전당을 4



삼성전기가 기후변화부문 플래티넘클럽을 수상받고 있다. (왼쪽부터) CDP 한국위원회 장지인 위원장, 삼성전기 최종민 상무, CDP 호세 오르도네스 APAC 총괄대표. /삼성전기

년 이상 유지해야 선정되는 최상급의 등급으로 명예의 전당은 CDP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은 상위 5개 기업만이 오를 수 있다. 이번 평가에서 삼성전기를 포함한 5개 기업이 플래티넘 클럽으로 선정됐다.

/차현정 기자

철도분야 수소모빌리티 확대 전략

현대로템은 10일 자사의 수소전기동력차와 수소전기자동차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각각 본상을 수상해 2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IDEA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올해는 전 세계 68개국에서 출품된 1만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됐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023년 수소전기트램으로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받으며 국내 철도업계 최초로 글로벌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수소전기동력차와 수소전기동차

는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수소 모빌리티다. 각각 기존의 동력차와 전동차에 대응하는 철도차량으로, 대전·울산 등에서 운영을 앞둔 수소전기트램에 이어 향후 철도 분야 수소 모빌리티 시장 확대를 이끌 전략 모델로 꼽힌다.

특히 이번 수상작에는 향후 현대로템 수소 모빌리티를 대표할 디자인 요소인 'H' 형태의 측면 그래픽이 처음 적용됐다. 현대로템과 수소(Hydrogen)를 상징하는 H 형상에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격자무늬 그래픽을 더해 수소 모빌리티 확산 비전을 담아냈다.

수소전기동력차는 강력한 동력 성능에 어울리는 인상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 대우건설, 현장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맞손'

대우건설은 지난 9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서울 중구 본사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 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 정보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면 근무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제도다. 근태 관리 자동화와 퇴직공제금의 투명한 관리, 근로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도입했다. 대우건설은 이미 자체 전자출입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정보를 관리해 왔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면서 현장 출입 인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현장 운영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권혁태 전무이사(이사장 직무대행, 왼쪽)와 대우건설 신동혁 최고안전책임자(CSO)가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 정보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우건설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상반기 9개 현장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 사업장을 확대해 최종적으로 전 현장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대우건설이 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출퇴근 정보 제공과 시스템 연계를 지원하고, 협력을 대상으로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코웨이, 장애인 체육 진흥 공로 인정받아

'코웨이 블루휠스' 운영

코웨이가 휠체어농구단 '코웨이 블루휠스' 운영을 통한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종목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0일 코웨이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22년 국내 휠체어농구 실업팀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휠체어농구팀 '코웨이 블루휠스'를 창단했다. 이후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

도록 운동용품, 훈련시설, 복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선수들의 훈련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를 통해 장애인 체육인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이같은 지원을 기반으로 코웨이 블루휠스는 각종 대회와 리그에서 꾸준한 성과를 이어나가며 국내 최정상급 팀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인사

◆ **대한체육회** ◇ 전보 ▲ 체육진흥본부장 심상보 ▲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장 안용혁 ▲ 선수지도지원부장 김성하 ▲ 생활체육부장 박정호 ▲ 스포츠클럽부장 김경미 ▲ 청소년체육부장 소형석 ▲ 교육기획부장 황병춘

## 부음

▲ **황대식**(창원상공회의소 감사·대우회계법인 대표회계사·향년 76세)씨 별세, 서미옥(메디치회 회장)씨 남편상 = 9일, 창원파티마병원 장례식장 VVIP실, 발인 12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진전면 서포리 선영. 055-270-1900